

마데라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며 지혜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청신 차려 껴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만 소망합니다.



청신 차려 껴어서 신자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회합니다.

오늘도 그를 향한 길을 걷는다

신윤식

만남의 길목마다
기대와 설렘의 발자국들 분주하다.
계단을 오르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면
어느새 깊숙한 골짜기에 서 있다.
마치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생각
솔바람에 나풀댄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
그분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나는 오늘도 허락된 길을 따라
보여준 만큼만 보고 걸어갈 뿐이다.
가끔 새로움에 대한 갈증과 함께
감추어진 진리를 만나게 될 때면
내 속은 기쁨으로 나풀댄다.

숨이 깔딱 밟을 것 같은 순간에는
가는 길 멈추고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분을 다시 바라본다.
아직 발길 닿지 않은 가야할 길들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겠지만
나의 길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
오늘도 그를 향한 길을 걷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2.4

발행호수 제19권 45호

모든 종교에는 기도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내용은 오로지 '자기 문제'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도는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현

대 기독교의 기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유일신이고 참된 신이라고 자랑한다고 해도 지금의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너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는 같은 종교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심이 자기 문제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아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문제가 절대자의 뜻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하되 그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의 뜻을 염두에 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절대자, 즉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간과 열정과 간절함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면 기도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간절함의 정도가 강해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없거나 자신이 힘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연히 기도는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급하고 절박한 자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로만 일관하고 있거나 아예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은 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며 깨어 있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참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

주일오전설교

마 26:36-46

예수님의 기도

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에서 말한 대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시고 39절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슬픔과 고민이 없이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것이 구세주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민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슬픔과 고민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은 장차 제자들이 걸어 가야 할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만 칠뿐입니다. 장차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펼쳐질 현실의 무거움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기도할 동안에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세계가 결코 가

별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장차 성령에 붙들리어 십자가의 길로 인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슬픔과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에 전혀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여전히 자기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슬픔과 고민이 되는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 또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에 참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같은 슬픔과 고민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무거움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가 슬픔과 고민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겟세마네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장차 제자들이 누릴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세계는 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세계입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이 같은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세상의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셔야 하는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뜻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오직 자기 뜻을 성취하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기도의 열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매년 수능 기간이 되면 교회는 기도회로 들끓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 문제, 자기 뜻의 성취가 관심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자신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즉 나의 뜻을 이뤄주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며,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자신이 뜻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간절함은 오로지 자기 문제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기 문제, 나이 뜻을 덮어 버린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 아래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는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동참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저주가 덮인 곳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현장에서는 더 헛된 것임을 아는 신자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세계에 동참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세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절감하는 신자라면 바로 이것이 자신의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육신이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말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당해 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쉽게 한다’ 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같은 말을 쉽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육신의 고통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뤄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으로는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능히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인해서 인생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세계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자기 세계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세계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기에 잠을 잔 것입니다.

신자의 깨어 있음을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고, 그 세계에 참여됨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자에게서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45,4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며 그러한 현실에서 설사 제자들이 원하는 삶이 이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이르면 저주로 끝날 인생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뤄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던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함께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도 죄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로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은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에서의 권징은 당회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권징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설사 권징이 행해진다고 해도 목사가 자신의 반대자를 축출하거나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당회가 권징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한 권징이 아니라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의 개인적 감정이나 우월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징을 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죄를 징계하는 모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징이 사라지는 이유는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수치가 될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분노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권징 자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고 죄에 대해 둔감해짐으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가 범죄한 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가서 권고하고 만일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 죄에 대해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에 대해 권고하는 이유는 형제를 얻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주일오후설교

마 18:15-20

교회와 권징

(교회15강 11.20 설교)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고 말하고 이어서 범죄한 자에 대한 권징의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권징의 의미와 목적이 판단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뒤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심판을 위한 권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증거되기 위한 권징이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징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된 권징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행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 교회가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한대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권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이 일을 성령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범죄한 자가 있다고 해도 그에게 권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권고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존심으로 인해서 반발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 나쁜 특정한 사람의 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존심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권고와 충고를 형제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심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죄에 대한 권고가 사라지게 되고 단지 친분관계만 유지되는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범죄한 자를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는 교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음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같은 죄에 대해 통탄히 여기지 않고 음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물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통탄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로 모이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

관심했고 단지 나만 잘하면 된다는 통속적인 사고방식에 묻혀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엄청난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부인줄로 알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주의나라가 어떤 것인가가 증거되기 위해 교회라는 관계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나만 잘하면 된다’ 는 사고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를 교회라는 관계로 연결하심으로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때문에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행한 형제를 권고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신 또한 누군가의 권고도 듣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세워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권고할 줄 아는 것이 곧 사랑이며 형제를 돕는 것이고 자신 또한 그러한 도움을 함께 한 형제로부터 항상 받을 필요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면 죄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권징을 교회법에서 정한 권계,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권징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며 따라서 신자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권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 4:12)라는 말씀처럼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의 잘못됨을 판단하며 회개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권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상에 독립된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연결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권세를 삼고자 해서는 안되는 거룩한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미를 두고 세상의 것으로 교회의 권세를 삼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이같은 죄를 철저히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거룩한 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선지자와 사도의 증거를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곁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즉 여러분께서는 서로서로가 선지자요 사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의 권고를 듣지 않는 것은 하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권징에 대해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죄를 심판하고 벌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체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형제를 얻기 위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권징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비할 바 없는 강한 힘을 소유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강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강한 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역사로

수요일설교

렐 3:1-10

돌아오지
아니하고

(9강 11.9일 설교)

나온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자신들도 힘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부럽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을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을 부러워했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온갖 고난을 받는 사도에 비해 풍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처럼 사도로 불리면서 바울보다 더 인기가 있고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사도에게 세상의 인기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대형교회의 목사 되는 것이 부러움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직 복음이 전부였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 됨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부를 누리며 힘을 가진 이방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을 향한 부러움은 자신들에게도 현실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져 이방신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을 5절에서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기 우리의 뜻을 이뤄주기 위한 힘이나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현대 교회가 잊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을 “네 눈을 들어 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2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 곧 음란과 행악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욕심으로 살아온 세월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오통 행음한 흔적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3절에서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창녀는 자신의 음란에 대해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몸을 사고파는 음란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고 신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에 대해 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치 또한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하면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행음한 자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수치스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를 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의 수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자들이고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호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도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유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모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행음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가는 행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같은 행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나의 수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욕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나를 향한 욕망에 집착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덤덤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는 유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동일하게 멸망을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욕심을 버릴 수 없는 나 자신에게서 봐야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그 이름도 부를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수치를 덮어 주실 하나님의 공화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욕망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화들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는 용서의 세계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아온 흔적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뒤덮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의 끝과 용서의 은혜의 끝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장

교 독 : 11(시17장)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539장

성 경 : 마 26:36-46

말 씬 : 예수님의 기도(16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7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538장

기 도 : 이경숙 집사

찬 송 : 411장

성 경 : 고후 9:8-9

말 씬 : 교회와 사회참여(교회1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2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2012년 교회달력 필요한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송재관 집사

세상에 중독된 삶

‘중독’ 하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중금속 중독, 쇼핑 중독 등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한번 중독되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헤어내기 힘들거나 아예 헤어날 수 없는 수많은 중독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에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삶이다. 삶을 중독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중독이란 뭔가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스로 자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사람이 만약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면 술을 마신다고 해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지만 중독되어 있다면 술을 자제할 수 없을뿐더러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즉 술을 통제할 수 없고 술이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모든 중독 현상의 결과물이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을 벗어나서는 삶을 지탱 할 수 없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 역시 마약이 없는 삶을 지탱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삶도 다르지 않다. 사람은 삶에 대한 자기만의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 하지는 못하지만 삶에 대한 고정된 시각이 바로 중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하나의 시각으로만 삶을 바라본다. 편향된 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편향된 시각은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행복과 기쁨의 조건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이는 세상이 이미 중독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같은 시각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삶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삶에 대한 고정된 시각은 우리를 오히려 괴로움으로 몰고 간다. 왜냐하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다. 어떤 조건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과 기쁨의 조건이 내게 고정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존재하던 행복과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중독된 삶의 현상이다.

세상에는 고정된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 모든 사람의 삶도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한 송이 꽃과 같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삶의 시작과 끝의 모든 여정 또한 확실한 것은 없다. 인간의 고정된 시각을 따라 펼쳐지는 삶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 중독된 삶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이 사라지면 한순간 불안감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세상에서의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실망감을 가져오는가를 미리 감지하면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